



열여섯번째 이야기

회복

[22-2 OBA 수료 간증]



신청 동기 및 과정 시작

처음 갈라디아서 신청 동기는 다소 불량했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 리더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임직 조건을 충족하라는 압박(?)에 못 이겨서 여러 과정을 알아보던 중 한 번 신청으로 4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는 유혹에 이끌려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 후, 집으로 도착된 학습서의 두께와 분량을 보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첫 수업 연습과 과제 준비를 위하여 교재를 읽고 성경 말씀을 찾으면서 '과연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과정 시작 전 신앙 점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아 가는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리더십의 권면으로 순장, 선교 사역자, 다락방장 등으로서 공동체 여러 사역에 참여하면서 만족감과 기쁨도 있었고, 그 속에서 물 떠온 하인만이 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축복도 경험하였습니다.

몇 해전, 공동체 전도집회 팀장으로 1년간 집회를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나서 말로만 듣던 Burn out 현상이 저에게도 와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Burn out을 나누실 때 저는 속으로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저 역시 어리석고, 부족한 자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제가 돌아온 탕자와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학습과정 리뷰

그래서 공동체 리더십에게 솔직히 저의 상황을 나누고 쉬를 요청하고, 순장으로만 섬기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일대일 제자 양육을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금번 BEE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이 저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제 및 연습을 위하여 교재를 PDF로 스캔해서, 출근 길 지하철에서 테블릿으로 말씀을 찾고 답을 달아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깊이 알아 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미나 시간에는 인도자님의 지속적인 반복 학습을 통하여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틀을 배우고, 나눔과 토론을 통하여 말씀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져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4:12)'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서 저의 지친 영과 혼을 회복케 하셨음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적 전투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는 딸들이 과정 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쁜 일을 했는데 믿기만 하면 정말 구원을 받아요?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불공평한 것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서, 과거나 현재나

동일한 질문이 있음을 보게 되고, 아이러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그에 대한 답을 준비해 주신 것 같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목숨 바쳐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탄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는 날마다 영적전투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 인사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10:8)’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신 갈라디아서 조재관 인도자님, 김남희 부인도자님, 로마서 김혁수 인도자님, 그리스도인의 삶 김선희 인도자님, 최선 부인도자님의 수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하며,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그 삶을 풍성히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과정을 끝까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도 있었으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니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도서 4:12)’ 라는 말씀처럼 서로에게 삼겹 줄이 되어 과정을 완주하고, 같이 수료식에 참석하게 된 귀한 두 분 석귀희 선교사님, 그리고 김용재 집사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롬 8:38~39)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글쓴이 박진영 성도]



온누리 교회 강서 공동체 다락방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2008년 12월 24일 아내를 통해 선포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잠3:6)’ 라는 말씀처럼 가정, 교회, 직장 및 속한 모든 곳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임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나아가고 있다.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

[정리 김옥숙 편집 최선]

BEE 소식

1. 2023년 “나는 빛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빛진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자혜 있는 자나
여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1:14).”

2. 2023 하반기 BEE 단기사역(아웃리치)이 있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을 축복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아프리카**
 1. 10/07-14: 케냐(WLICC)
 2. 10/15-23: 탄자니아(WLICC)
 3. 10/24-31: 졸업식(라이베리아, 가나, 토고)
- ✓ **필리핀**
 1. 8/22 - 26 부두안(만다나오): 히브리서 세미나
 2. 8/28-9/01 까비떼(마닐라 근처)
졸업식(28 일), FTS: 31-9/01
- ✓ **네팔**
10/2 - 7(네팔 전략회의 및 영성 컨퍼런스)
- ✓ **인도네시아 - 마검**
10 월 말(솔라웨이, 졸업식 및 FTS)

3. 2023 ‘여름방학 특강’이 준비되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시원한 주님의 말씀과 함께! 많은 참석과 홍보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월저녁-줌)	6/12-7/31
성경을 펼쳐라 I	(월저녁-줌)	6/12-8/28
그리스도인의 결혼	(토저녁-도곡)	6/17-8/12
모세오경	(일저녁-줌)	7/2-8/27
히브리서	(화오전-202호)	7/4-8/29



monotoon [모놀로그 in 바이블]

김수경 작가의 모노톤 일러스트와 함께 시간순으로 읽는 성경 인물들의 생생한 독백을 정주행하며 신약성경 차례대로 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

“짜증 나! 그동안 쫓아다닌 시간이 아까워 죽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갈릴리의 부부



“어보, 나만 그 사람 태도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밤새워 찾아간 우리한테!

우리가 메시아의 표징을 보고 자길 따라온 게 아니라 하기전 배 채워 줄 사람 같아 쫓아왔다고? 아이없어!”



“없이 산다고 우릴 아주 상까지 취급을 하는 거지! 나 여기 있소 하면서 만나의 기적을 봤낼 뻔 언제고, 찍어 없어질 양식에 아등바등한다고 혼장질을 해?”



모놀로그 in 바이블

“어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결론이 뭐예요? ‘난 절대로 너네 왕이 돼 줄 생각 없다’ 그거예요?”

“아,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잖아요! 왕을 하고 싶으면 그만 정신 나간 소리를 하겠냐?”



모놀로그 in 바이블

“아, 맞아! 아까 그 말 진짜 너무 엄격적이었어! 자기 삶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으, 소름 돋아!



어보, 대체 그게 무슨 뜻이예요?”

“... 하, 이게 또 지금 생각하면 비유 같기도 한데, 옛적에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들 먹고 생존했잖아요.

그 만나처럼 본인도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다. 그러니까 날 먹으면 죽 나를 따르면 영생하게 된다. 그거 같아요.”



모놀로그 in 바이블

“에이!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해요? 말도 안 돼.”

“자기가 만나를 내려 준 모세보다 높다 그거지 뭐겠어? 하! 우리가 떠받들어 주니까 아주 막 도를 넘는 거죠!”



모놀로그 in 바이블

“그래도 그 사람을 이대로 단념하긴 너무 아까워요. 그가 왕이 되면 적어도 배움을 잃은 없잖아요.”



“꿈 깨요! 그는 우리가 원하는 걸 줄 생각이 없어요. 아까 못 봤어요?”



모놀로그 in 바이블

“우리가 하늘의 떡을 항상 달라니까, 왜 자기를 보고도 못 믿느냐고 동문서답하잖아요.”

“짜증 나! 그동안 쫓아다닌 시간이 아까워 죽겠어요.”



모놀로그 in 바이블

출처 https://instagram.com/monotoon_kimsookyun